

# 새 역사 'BTS' 그라미 3년 연속 후보



## K팝 최초·3개 부문 노미네이트 내년 2월 5일 그라미 어워즈서 발표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라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가요계에서는 3년 연속으로 그라모폰(그라미 트로피)에 도전하는 방탄소년단이 K팝 가수 최초로 수상까지 이뤄낼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는 등 '그라미 어워즈'를 제외한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모두 수상 경험이 있다.

방탄소년단은 15일(현지시간) 제65회 그라미 어워즈 후보 발표 행사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와 '베스트 뮤직비디오'(Best Music Video) 부

문 후보로 지명됐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수록된 밴드 콜드플레이 9집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4대 분장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 가운데 하나인 '앨범 오브 더 이어'(Album Of The Year) 후보에 올랐다.

'그라미 어워즈'는 이 부문에서는 피쳐링 참여 아티스트, 송라이터, 엔지니어 모두를 수상자(winner)로 기록한다. 이에 콜드플레이가 수상한다면 방탄소년단은 '앨범 오브 더 이어' 수상 기록도 갖게 된다. 또 이 앨범에 송라이터로 참여한 멤버 RM, 슈가, 제이홉도 기록이 등재된다.

이에 따라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와 '베스트 뮤직비디오'에 더해 '앨범 오브 더 이어'까지 총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는 게 빅히트뮤직의 설명이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도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3년 연속 그라미 후보 지명이라는 K팝 새 역사를 썼다.

더욱이 1개 부문 후보에도 오르기 힘들다는 이 시상식에서 이날 복수 부문 후보에 이름이 불리는 '깜짝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방탄소년단은 콜드플레이와의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에 드는 데 성공했다. '마이 유니버스'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고, 미국과 영국 양대 차트에 장기 진입하며 흥행했다.

또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루프'(Proof) 타이틀곡 'Yet To Come'(Yet To Come)으로 '베스트 뮤직 비디오' 부문 후보로 지명됐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Yet To Come과 함께 저희가 참여한 곡인 '마이 유니버스'도 그라미 후보로 선정돼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65회 그라미 어워즈는 내년 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상상 넘는 발상...시 읽는 즐거움

장흥 출신 김성신 시인 '동그랗게 날아야 빠져나갈 수 있다' 펴내

시인은 본질적으로 상상을 하는 사람이다. 일테면 '직업이 상상가'라 할 수 있다. 사물이나 현상을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낼 때 시인 자신뿐 아니라 독자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축수와 언어에 대한 감수성과 이를 직조할 수 있는 구상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김성신 시인의 시집은 눈에 띈다. 특유의 상상력을 자신만의 시어로 풀어내는 방식이 이채롭다.

장흥 출신 김성신 시인이 펴낸 첫 시집 '동그랗게 날아야 빠져나갈 수 있다'(포지션)는 유연하면서도 날카로운 상상의 산물이다.

그는 50이 넘어 시를 접했다. 이번 시집 '시인의 말'에서 그가 건네는 말은 지금까지 어떻게 시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는지를 가능하게 한다. "신음으로 비탈길을 내질"려야 했던 지난날이 그려지기도 한다.

"지천명의 나이에 굶어진 시(詩) 골동에 들기 위해 깊고 푸른 발자국을 새기며 작아졌다 커지는 신음으로 비탈길을 내질렀다. 그림자를 돌아앉고 견고 풀어내는 것의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작품집에는 모두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나방은 누가 풀어 놓았을까", "모든 동물은 전복을 꿈꾼다", "에어캡", "마블링", "부드러운 선인장", "봄 풍등" 등 작품은 시인의 시적 역량이 발휘된 시들이다.

"...비스듬히 현두 손/ 잘못 스친 상처, 가시로 자라쥬/ 풀 어 둔 말, 층층 쌓기도 해요// 식물이잖아요, 오해를 참는/ 기대는 법을 잊고/ 가끔 먹구름을 선식으로 먹는// 정복으로 잎 솟을 때마다/ 늘 조금씩 창밖을 향해 어긋나기도 하죠(후략)"

위 시 '부드러운 선인장'은 시인의 이색적인 시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가운데 하나다. 일련의 상상을 넘는 발상과 표현은 시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한편 김성신 시인은 지난 2017년 '불교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원광대 한문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대 대학원 문창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랑 이야기가 된 '행복한 왕자'



(ACC재단 제공)

## 오스카 와일드 작 음악극 재해석 다음달 10·11일 ACC 어린이극장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사는 왕자와 제비의 이야기를 다룬 명작이다. 19세기 영국 물질만능 위주의 삶의 행태를 동화로 그려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다.

'행복한 왕자'를 사랑 이야기로 풀어낸 음악극이 관객을 찾아온다. 12월 10일-11일(11시·오후 3시) ACC 어린이극장. 이번 무대는 2022년 ACC어린이극장 공동기획 프로그램의 마지막 작품으로 올려지며 제19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우수

작품상, 각본상, 음악상, 연기상 등을 수상했다. 공동기획 단체인 극단 북새통이 제작했다.

작품 속 배우들이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는 유랑극단의 광대와 같다. 이들은 수레에서 꺼내는 소품으로 왕자가 되기도 하고 제비가 되기도 한다. 제비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질문과 의미를 던진다. 사랑을 사랑한 나머지 흉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왕자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묻기도 한다.

아울러 ACC재단은 음악극 '행복한 왕자'와 연계해 초등생 대상 연극놀이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일상의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7세 이상 관람가, 전석 1만5000원. 자세한 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 평일에 만나는 'KBS 드라마 스페셜'

## 단막극 합동 제작발표회... '얼룩'·'방종' 등 8편 라인업 공개

지난 38년간 지상과 단막극의 명맥을 이어온 'KBS 드라마 스페셜'이 올해부터 평일 황금시간대로 옮겨 새롭게 안방 관객들을 찾아간다.

KBS는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단막극 합동 제작발표회에서 '드라마 스페셜'의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건준 KBS 드라마 센터장은 "단막극은 한류 드라마의 자랑분"이라며 "단막극을 통해 신인 감독, 작가, 배우들이 발견되고 훈련받기 때문에 KBS는 지난 38년 동안 단막극을 정규 편성해왔다. 한류를 이끌 새 얼굴들에 주목해달라"고 밝혔다.

작년까지 심야 시간에 편성됐던 'KBS 드라마

스페셜'은 올해부터는 방송의 황금 시간대로 불리는 평일 9시 50분에 방송한다.

'얼룩', '방종', '프리즘', '열아홉 해달들' 단막극 총 8편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가장 먼저 16일 전파를 타는 '얼룩'은 남의 집에서 몰래 피아노 연습을 하던 음대생이 예기치 못한 손님과 맞닥뜨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주연을 맡은 차학연은 "출연이 결정된 이후에 바로 연습을 시작해서 두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연습했다"며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17일 방송되는 '방종'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정

년 '오병훈'이 우연히 초능력을 손에 넣게 되면서 다크 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다. 연출을 맡은 최정은 PD는 "시청자들이 오병훈에게 이입해 감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오병훈을 공감되는 캐릭터로 그려내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예술고등학교에서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흔들리는 꿈과 우정, 사랑을 그린 '프리즘'은 오는 30일 방송된다.

이대경 PD는 "거칠더라도 에너지가 넘치는 배우들을 만나기 위해 단막극치고는 이례적으로 두 달에 걸쳐 캐스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열아홉 청춘의 성장 드라마 '열아홉 해달들'은 내달 1일 선보인다.

이 밖에 '낮선 계절에 만나'(내달 7일), '팬티의 계절'(8일), '아쉬랑가를 아시나요'(14일), '양들의 침묵'(15일) 등이 순차적으로 방송된다. /연합뉴스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